

현대차 “‘품질경영’ 기반, EV 경쟁력 강화·SDV 중심 전환”

현대자동차, 제56기 주주총회
장재훈 사장, 사내이사로 재선임
기말배당금 주당 8400원 확정

“전기차(EV)의 근본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현대자동차가 장재훈 대표이사 사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 본사에서 열린 제56기 주주총회 인사발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경영 방향을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장 사장은 오는 2027년까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경영진과 함께 현대차를 계속 이끌게 됐다.

장 사장은 이날 “올해 글로벌 경제가 여러 대외적 불안 요인으로 경기 변동성이 심화되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산업 수요가 타격을 받는 등 위기감이 확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자동차 분야에서는 경쟁사의 공격적 전기차 가격 인하 정책으로 원가경쟁력 확보 경쟁이 시작됐으며 우려를 표했다.

장 사장은 위기 돌파를 위해 “현대차 성장의 근간이 돼 온 ‘품질경영’을 기반으로 전기차 경쟁력 강화와 SDV(소프트웨어 중심의 차)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기본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사장은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중점 과제로 품질경영 강화와 함께 ▲유연하고 민첩한 사업 대응력 강화 ▲전기차 근본 경쟁력 강화 ▲SDV 전환 체계 본격화 ▲전기·수소 에너지사업모델 구체화 및 생태계 구축 ▲인재 확보·조직문화 혁신 등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장 사장은 “지역별, 차종별로 유연하



현대차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장재훈 대표이사 사장 등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재선임 안전 통과. /현대차

게 물량을 배정하고, 민첩하게 생산·판매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최근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요가 확대되자, 내연차 전 라인에 걸쳐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기차 전환기, 일정 수준 내연기관차 수요를 흡수해갈 것이라 판단도 작용했다.

현대차는 이르면 올 연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공개와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신타페 하이브리드 양산도 빠르게 늘려나갈 방침이다.

미래 전기차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근본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 “부품과 제어기의 통합 및 내재화, 설계·공정 혁신 등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상품 라인업 효율화, 신형국별류체인 강화를 통해 EV의 근본적 원가절감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고유의 EV 판매 포인트를 개발하고, 충전 솔루션 확대 등으로 서비스를 차별화하겠다”며 “올해 계획 중인 중대형 전기차 SUV의 성공적 출시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장 사장은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SDV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높인다. 그는 “모든 차종을 SDV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AVP

(Advanced Vehicle Platform) 본부를 신설한다”며 “분산된 연구개발 조직을 통합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 양산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집중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차량 제어를 전자·편의, 주행 성능, 인포테인먼트, 첨단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4가지 기능 영역으로 각각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이어 작은 부품부터 생산까지 아우르는 ‘칩 투 팩토리’ 전략을 통해 SDV 양산을 가속하겠다”고 했다.

장 사장은 전기·수소 에너지사업모델 구체화와 관련, EV 판매와 연계해 글로벌 충전사업자 연결플랫폼을 구축하고, 홈 충전기,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첩한 조직을 구축하고, 인재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 주총에서 기말배당금 주당 8400원(보통주 기준)을 확정했다. 이사보수한도액도 전년 대비 18억 원 증액한 218억 원으로 확정했다.

/양성은 기자 ysw@metroseoul.co.kr

LG이노텍 “전장매출 5년 내 5兆 목표”

문혁수 대표 “자율주행·ADAS 집중”

문혁수 LG이노텍 대표이사 최고경영자(CEO)가 5년 안에 전장사업 매출을 5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21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빅테크 고객과 함께 광학솔루션 사업을 세계 1위로 키워낸 경험이 있다”며 “전장 사업은 현재 2조원대 매출을 하고 있는데, 5년 내에 5조원대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사업 다변화의 일환으로

전장 사업에도 주력하겠다고 그 일환으로 최근 경영진들과 독일의 벤츠사를 방문한 것을 언급했다. 문 대표는 이달 초에도 LG그룹 계열사 CEO들과 함께 독일을 방문해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그룹 회장을 직접 만났다.

문 대표는 앞으로 전장 사업에서 자율주행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 카메라 뿐 아니라 라이다 센서와 레이더 등을 합쳐 자율주행 관련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G엔솔, 기술역량 바탕으로 고객가치 실현

가장 많은 특허 보유·기술력 확보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최고의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가치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500조원에 달하는 수주액과 풍부한 글로벌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생산능력과 전 세계 배터리 기업 중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기술력 확보, 자동차전지·소형전지·ESS에 이르는 다양한 압도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말 그대로 어떠한 위기에도 견뎌 낼 수 있는 든든한 기초체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개최된 국내 최대 2차전지 산업 전시회인 ‘인터배터리’에서는 차별화된 배터리 기술력을 과시했다. 전시 부스에서 최초로 공개한 파우치형 배터리 셀투팩(CTP, Cell To Pack)부터 미드니켈(Mid-Ni) 조성을 처음으로 적용한 소형 파우치 셀 등을 공개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이끌었다.

전시회 기간 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셀투팩 기술은 최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첨단 팩 디자인이다. 기존 배터리 구성에서 모듈 단계를 제거, 팩에 직접 셀을 조립함으로

써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배터리 무게와 비용을 절감한 것이 특징이며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개발한 파우치형 셀투팩은 파우치 셀의 가벼운 무게 특성을 가져가면서도 팩 강성을 높이고 검증된 열 전이 방지 기술을 적용해 안정성을 강화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처음 공개한 IT기기용 미드니켈 소형 파우치 배터리는 100% 미드니켈 조성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고전압 영역을 가능하게 만든 업계 최초 기술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2024 인터배터리 어워드’에서는 ‘미드니켈(Mid-Ni) Pure NCM’으로 ‘종합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기존 LCO(리튬코발트산화물)배터리 대비 가격 안정성 또한 확보할 수 있어 노트북 등 IT기기용 배터리 산업의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에도 성장 모멘텀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확보해 경쟁우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성은 기자

제주항공, 사업 다각화로 미래성장 동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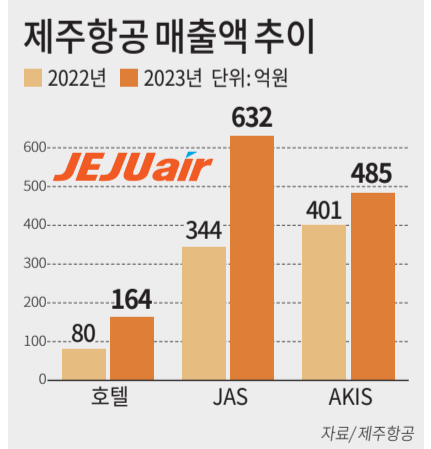
호텔·지상조업·IT 등 자회사 시너지
외국인 관광객 등 고객 유치 집중

제주항공이 호텔, 지상조업, IT 등 자회사와의 시너지 확보와 함께 사업 다각화로 미래 성장 기틀 마련에 집중한다.

21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2023년 연결 기준 1조7240억원의 매출액과 169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제주항공의 항공운송사업은 1조6993억원의 매출과 1618억원의 영업이익을 나타냈다. 제주항공의 자회사인 호텔사업, 에이에이에스(JAS), 에이케이아이에스(AKIS)는 각각 164억원, 632억원, 485억원으로 역대 매출을 달성했다.

제주항공은 중·단거리 중심의 항공운송사업과 뛰어난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호텔사업으로 인바운드(외국인의 한국여행) 고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흥대에 위치한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서울흥대’는 인천국제공항에



서 접근성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이지드랍서비스, 런치뷔페 운영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다양한 국적의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지상조업 자회사 JAS는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 국내 8개 공항에서 여객발권 및 수속, 수하물 이동 및 탑재, 항공기 급유 등 지상조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설립 6주년을 맞이한 JAS는 설

립 이후 28만6614편의 지상 조업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5만162편의 조업 업무를 수행하며 850만여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했다. JAS는 지난해 632억원의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2019년 355억원 대비 78.0%, 2022년 344억원 대비 83.7% 증가한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엔데믹 이후 꾸준한 성장을 통해 1분기 126억원, 2분기 144억원, 3분기 177억원, 4분기 18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9월 새롭게 자회사로 편입한 AKIS를 통한 IT경쟁우위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2007년 설립된 AKIS는 항공, 유통, 제조, 화학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IT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2022년 401억원, 2023년 48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제주항공은 AKIS의 자회사 편입을 계기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

/양성은 기자

젠슨 황, 삼성 HBM3E에 ‘승인’ 친필 사인 (엔비디아 CEO)

한진만 부사장 SNS에 사진 게재

21일 한진만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미주총괄(DSA) 부사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CEO가 삼성의 HBM3E 12H에 서명한 사진을 올렸다.

한 부사장은 사진과 함께 “삼성의 HBM3E에 승인 도장(stamp of approval)을 찍어줘 기쁘다”고 글을 남겼다. 승인 도장은 ‘젠슨이 승인함(Jensen Approved)’이라고 적혀 있다.

정황상 젠슨 황이 삼성전자 행사 부스에 들러 제품을 관람하고, HBM3E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GTC2024에



한진만 삼성전자 DS 부문 미주총괄 부사장이 SNS에 게시한 젠슨 황의 서명. /SNS

서 지난 달 발표한 HBM3E 12H를 최초로 실물 공개했다.

HBM3E는 AI 서버용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의 5세대 제품으로 HBM3E 12H는 업계 최초로 D램을 12단으로 쌓은 모델로 수직 연결한 D램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렸다. /김서현 기자 seoh@